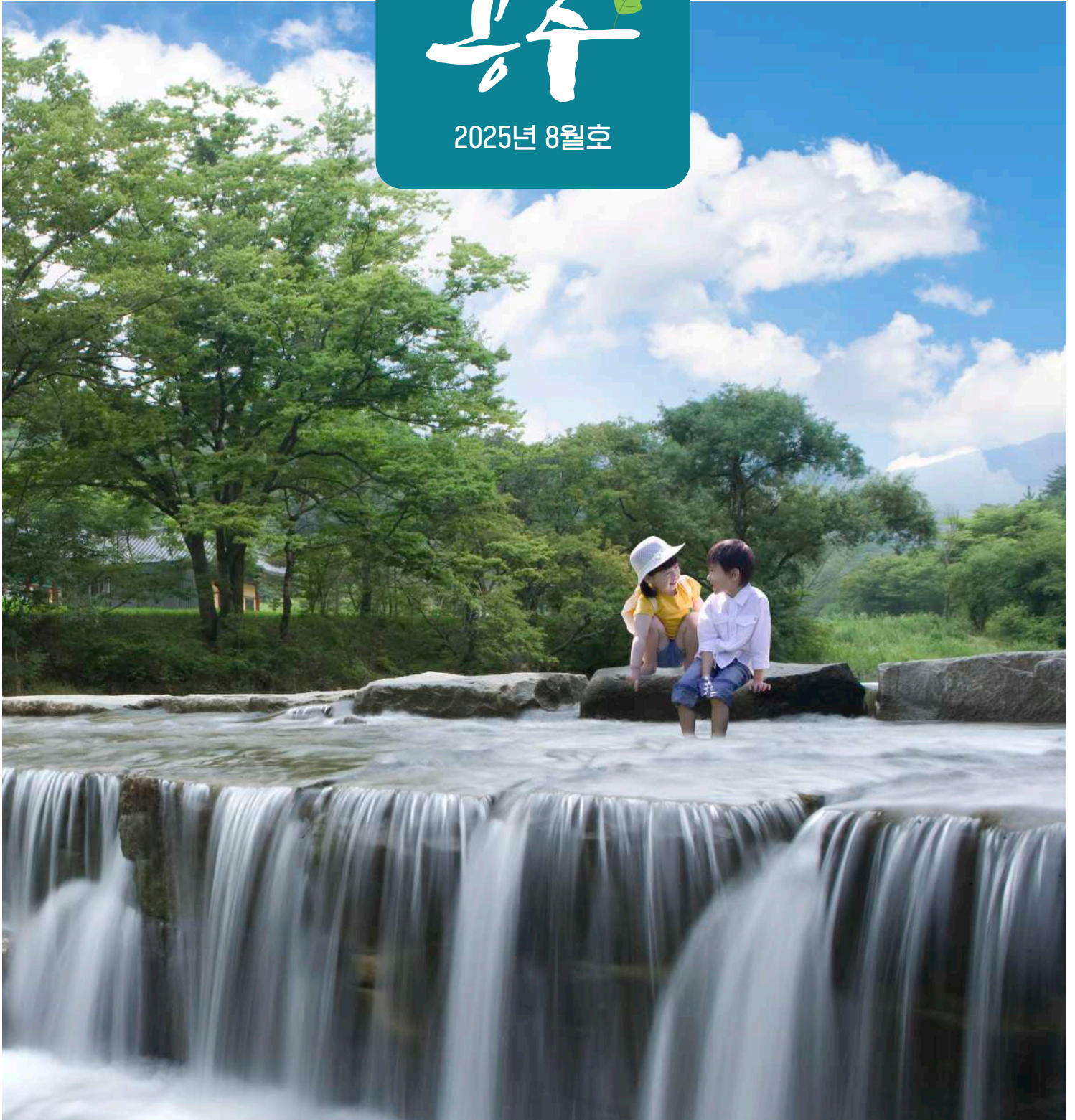


WWW.GONGJU.GO.KR

# 홍미진진 공주

2025년 8월호



푸른 녹음이 어우러진 마곡사 징검다리 폭포 | 사곡면 마곡사로 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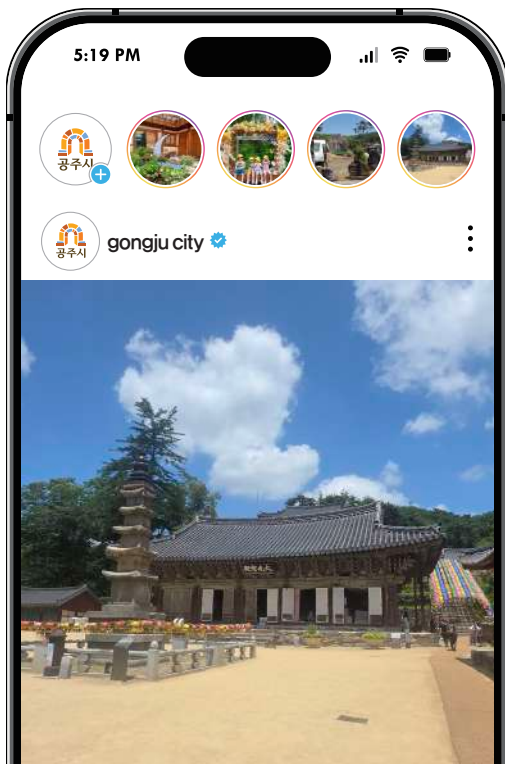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핀  
꽃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며 마음까지  
힐링되는 기분이었다.  
독자 @jeongmin6475(공주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한 소풍날~♪  
수국정원에 활짝 핀 꽃과  
화창한 날씨 덕분에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하루였네요~😊  
독자 @dodo317619(공주시)

#공주장승조각공원  
#공주글램핑장 #데이트명소추천  
다양한 조형물이 가득한  
장승마을은 꼭 미술관 같네요.  
다음번에는 야경을 즐기러  
다시 가보려고요!  
독자 @jhlee2732 (공주시)

#어머니와주말나들이  
#마곡사 #그림같은풍경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공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여름날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한 폭의 그림같죠?  
독자 @hak\_rae(대전시)



Gongju + SNS

## SNS 로 만나는 공주의 일상



공주에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  
즐거운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사진과 이야기는 편집을 거쳐  
다음 호 '흥미진진 공주'에 게재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인스타그램  
형태로 가공해 디자인에 활용됩니다.

보내실 내용  
직접 촬영한 공주시 사진(2MB 이상)  
100자 이내의 사연  
※ 상품발송을 위한 성함, 연락처,  
거주 지역도 함께 기입

보내실 곳  
dnc-hq04@naver.com

응모기한  
8월 12일(화)까지

04

공주, 늘 새롭게



04 시민 행복도시 공주  
종이의 걸 따라  
한 권의 책을 완성하다  
‘공주 책공방북아트센터’

12

공주, 늘 가깝게



12 여기 어때?  
‘광복 80주년 맞이’  
태극기로 함께하는  
나라 사랑의 하루

18

공주, 늘 알차게



18 공주 소식

28

공주, 늘 즐겁게



28 공주 도래미(道來味)  
유구전통시장에서 만나는  
미국 정통 수제버거의 맛!  
‘유나인버거 조인트’

06 활력도시 공주  
금강 따라 펼쳐지는  
3일간의 톡! 쏘는 축제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

14 골목 지킴이  
천 위에 마음을 수놓고  
60년 세월을 정성으로 깎다  
‘춘희옷작업실’

20 공주 알림

29 문화 캘린더

08 역사도시 공주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2장\_웅진성 소야곡  
6화 웅진, 새로운 백제의 왕도

16 마을 지킴이  
주민과 함께 쌓아온 세월  
사람 향기 가득한  
두만리를 만나다

22 시민 기자

30 기부 소식

10 Heart 人 공주  
10만 공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  
‘공주경찰서’

24 의회 소식

31 튼튼 건강

2025년 8월호  
VOL. 365  
홍미진진 공주

발행일 2025년 8월 1일 발행인 공주시장 발행처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편집위원 윤용혁 황교수 유환권 양진모 제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홍미진진공주 통권 365호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층, 문맹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점자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홍미진진 공주’ 구독 신청이나 취소, 주소 변경 및 지인 구독 추천에 대한 문의는 홍보미디어실(041-840-84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청 문의 1899-0088 | 041-840-3800

# 종이의 걸 따라 한 권의 책을 완성하다

공주 책공방북아트센터



역사는 언제나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다. 특별해서 기록되기도 하지만, 기록되었기에 특별해지는 순간들도 있다. 이처럼 기록은 지나간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공주시에 문을 연 '책공방북아트센터'는 누구나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책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온전히 경험해 보자.



공주 책공방북아트센터  
📍 오거리길 6 ☎ 070-8866-2001 🗓 화-일요일 10:00~18:00(월요일 휴관)



## ‘책’을 주제로 한 아날로그 복합체험문화공간

공주시 최초의 문화콘텐츠 특화시설인 '책공방북아트센터(이하 책공방)'가 문을 열었다. 봉황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한 이곳은 지상 1층, 645.72㎡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책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 책공방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손길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는 지금 책공방은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와 체험, 교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이곳에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종이의 감촉, 잉크 냄새, 정교한 제본 과정을 경험하며 책이 작품으로 태어나는 순간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된다.

## 손끝으로 직접 완성하는 한 권의 책

책공방에서는 직접 종이를 만지고, 접고, 붙이며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가족다이어리 워크숍'은 미리 준비된 내지에 가름끈과 꽃무늬 천, 면지를 붙이고 가족 커버를 씌우는 방식으로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섬세한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제본의 원리와 책의 제작 과정을 익힐 수 있다. 기록의 즐거움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스크랩북 만들기'가 제격이다. 도서 목록, 독서 기록, 자기소개 등 16가지 주제가 담긴 속지를 선택해 바인더 형태로 완성하는 책은 리필이 가능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기록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꾸미기' 요소가 가미된 '팝업북 만들기'는 종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재미가 있다. 체험 후에는 브로셔, 사진, 입장권 등을 엮은 워크북을 제작하며 공방에서의 경험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

## 세대를 아우르는 책공방, 함께 만드는 이야기

책공방은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할 수 있는 열린 창작공간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대표 체험 프로그램 '동화책 만들기'는 이동형 공간인 '책 만드는 버스'에서 이야기와 일러스트가 인쇄된 본문을 접고 묶은 뒤 양장 표지를 붙이며 완성하는 체험이다. 아이들은 책을 단순히 읽는 데서 나아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은 현장 접수 또는 주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30명 이상 단체는 방문 일주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 성인과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책공방 책학교, 나의 삶 워크숍, 자서전 학교, 공주 인생보 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인생기록형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북토크, 문화 공연, 출판기념회 등 책과 감성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공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 전시를 통해 보는 할자 너머의 세상

이제는 한 권의 책이 우리 손에 닿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볼 차례다. 책공방의 상설전시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책의 물성展'은 장인의 손끝에서 책이 완성되던 시절을 열 개의 챕터로 소개한다. '책의 시작, 글자를 심다'를 시작으로 원고지와 손글씨, 편집디자인, 출력 오퍼레이터를 거쳐 '묶어야 책이 된다'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흐름에 따라 구성된 전시는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든다. 기획전시는 책의 제작 과정을 '도구'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책공방 수장고, 책공방 책가도, 아트월 BOOK TOOLS 도구가 책을 만든다 등의 전시에서는 과거 실제 현장에서 쓰이던 인쇄기, 재단기, 제책기 등 아날로그 기계부터 조선 후기 책 선반 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브제, 장인의 손때 묻은 도구들을 담은 감각적인 포토존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책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또 다른 이의 마음에 닿는 결과물이다. 그 따뜻한 온기를 손끝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책공방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요즘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아날로그의 감성이 책이 가진 진심을 고스란히 전해줄 것이다.

# 금강 따라 펼쳐지는 3일간의 특! 쏘는 축제

##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

일시 : 8월 15일(금)~17일(일)

장소 : 금강신관공원 일원

특 쏘는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더위를 날리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 여름밤을 만끽할 시간!  
낮보다 더 반짝이는 공주의 밤, 올여름을 특별하게 물들일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의 매력을 지금 바로 만나보자.

### 여름밤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축제의 시작

8월 15일(금) 저녁 7시,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공주야(夜)밤 맥주축제'의 화려한 막이 오른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개막식은 '2025~2026 충남·공주 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홍보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며, 감각적이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여름밤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는 약 5,000여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며 축하 인사와 환영 영상, 그리고 축제의 설렘을 한껏 끌어올릴 기념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시원한 금강의 바람처럼 무더위를 날려줄 다채로운 무대가 연이어 펼쳐지며, 관람객들은 일상의 틀을 벗어나 여름의 자유로움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뮤직 파노라마

1부 19:00 ~ 20:00  
2부 20:30 ~ 22:00

#### 1일차 8. 15.(금)

전국 재즈탭 대회 1일차  
조째즈 / DJ 뉴진스님

#### 2일차 8. 16.(토)

전국 재즈탭 대회 2일차  
탁재훈 밴드 / DJ 박명수

#### 3일차 8. 17.(일)

재즈탭 시상 및 수상자 공연  
순순희 / DJ 수빈

\*본 일정 및 출연 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어 페스티벌

일시 : 8월 15일(금) 18:00~22:00  
장소 : 금강신관공원 일원&치맥존

### 맥주 축제

일시 : 8월 15일(금)~17일(일)  
18:00~22:00  
장소 : 피크닉존&라운지존

## 금강에서 펼쳐지는 3일간의 뮤직 파노라마

축제 기간 동안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는 금강의 절경을 배경으로 매일 다른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매일 저녁 7시에는 '전국 재즈탭 경연대회'가 축제의 포문을 열고, 이어서 K-팝과 DJ퍼포먼스까지 밤공기를 가득 채울 다채로운 선율이 이어진다. 15일(금)에는 40세의 핫한 신인 조썰즈와 EDM 리믹스 DJ로 활동 중인 뉴진스님(윤성호)이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16일(토)에는 개그맨이자 DJ로 활동 중인 박명수와 가수이자 예능인으로 활약 중인 탁재훈이 여름 금강의 감성을 더욱 짙게 물들일 공연을 선보인다. 17일(일)에는 3인조 남성 그룹인 순순희와 DJ 수빈이 축제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며, 울려라 공주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완성할 예정이다.

## 여름밤의 맛있는 시간 푸드 페어링존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맛있는 먹거리다. '푸드 페어링존'에는 치킨존, 스낵&핑거푸드존 그리고 푸드트럭 등 맥주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프라이드 치킨과 감자튀김, 프레첼 같은 클래식한 안주부터 공주만의 특별한 메뉴까지. 취향 따라 골라 맛보고 즐길 수 있다.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어울리는 완벽한 한 입을 선사할 든든한 식사부터 가벼운 간식까지.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깨우는 여름밤의 맛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 오감으로 즐기는 비어 페스티벌

이제 축제의 진정한 주인공인 맥주를 맛볼 시간이다. 행사장 한쪽에는 공주시에 위치한 양조장이 직접 참여하는 '주류존(ZONE)'이 운영되며, 본 행사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6시에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공주에서 생산된 알밤 막걸리와 세계 각국의 개성 넘치는 맥주까지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다. 한편 '치맥존'에서는 맥주를 더 재미있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색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맥주잔을 차곡차곡 쌓고, 비어퐁을 던지고, 누가 더 빠르게 마시는지 겨루는 '비어(Beer) 올림픽', 나만의 맥주 한 병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눈을 가리고 맥주 맛을 맞히는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맥주 애호가라면 이 순간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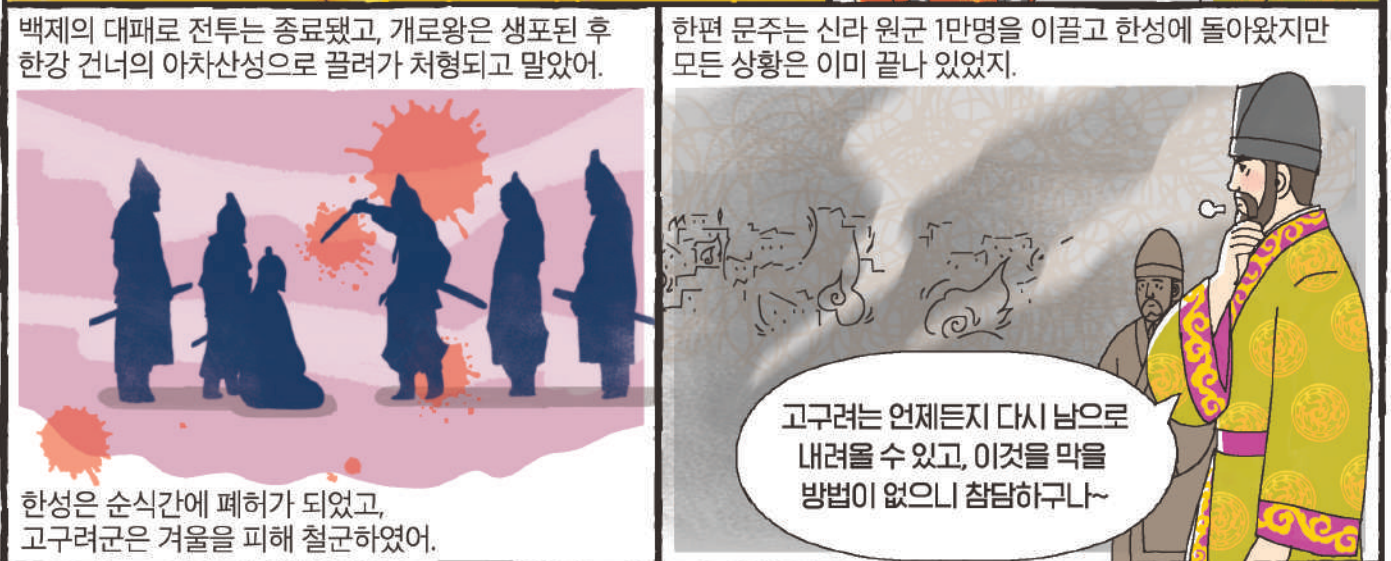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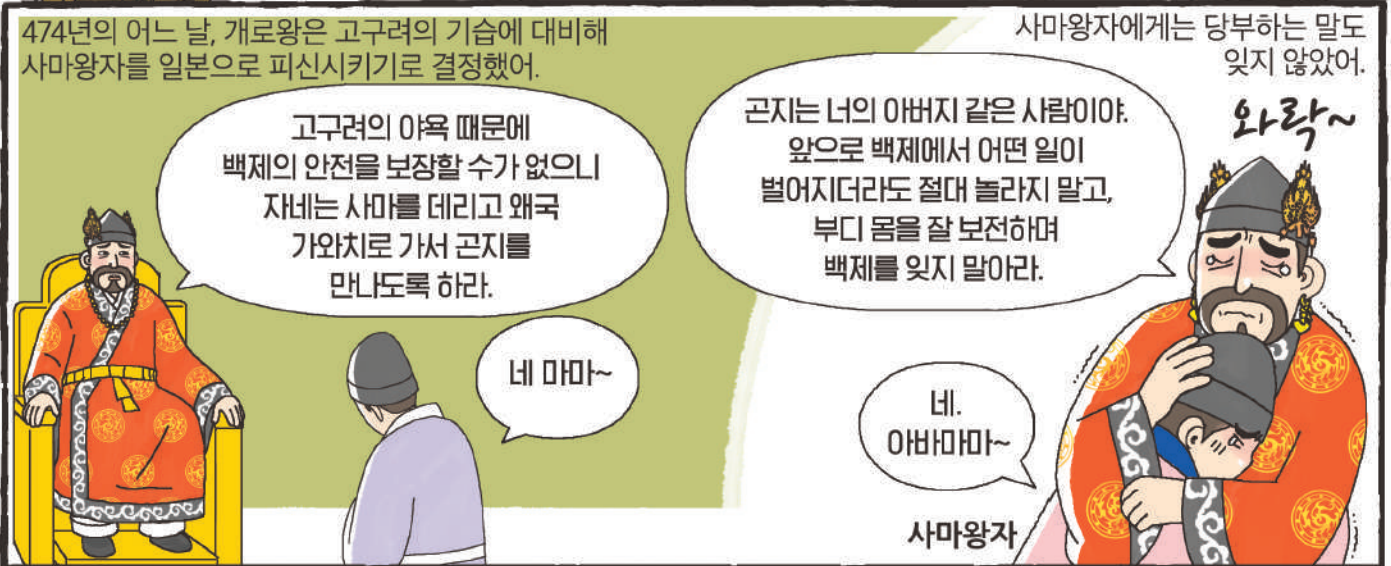
## 낮과 밤이 즐거운 여름날 맥주 축제

꼭 맥주를 마셔야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더위를 식히고, 금강의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축제 기간 금강신관공원 일대에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피크닉&라운지'가 운영된다. 피크닉존에서는 워터슬라이드와 에어바운스 수영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라운지존에서는 그늘 아래 놓인 스톨과 의자에 앉아 금강을 바라보며 잔잔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축제, 그 특별함이 바로 '공주야(夜)밤 맥주축제'의 진짜 매력이다.

무령왕의 62년 생애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2장\_웅진성 소아곡

## 6. 웅진, 새로운 백제의 왕도

만화 최 현 정 대본 자료 무령왕국제네트워크





\*구마나리(웅진)-지금의 공주.



새 도읍지로 떠오른 구마나리는 곰과 사람이  
아기를 낳고 같이 살았다는 오랜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웅진, 즉 공주시를 말해.

475년 가을 10월, 문주는 남은 한성의 귀족, 사람들과 함께 웅진으로  
내려왔어. 모든 사람과 짐을 배에 실어 서해 앞바다를 지나 금강으로  
들어왔다.



웅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굳이 성을 쌓지 않아도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은 지형이야.



# 10만 공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

## 공주경찰서

오늘도 누군가의 조용한 수고로움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아무 일 없는 듯 고요히 흘러간다. 분주한 아침 출근길의 도로 위, 늦은 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끝에서도 누군가는 우리 곁에서 하루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교통 통제부터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사건 수사까지. 공주경찰서는 도시 곳곳의 위기를 미리 살피고, 일상의 빈틈을 채우며 공주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민의 평온한 하루를 지켜내는 이들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본다.



### 사각지대 없는 공주시를 위하여

공주경찰서는 10만 공주시민의 일상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며, 도시 곳곳의 평온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112 신고 대응, 순찰, 수사, 교통관리, 경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와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서민 경제와 교통, 생활질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 중심 캠페인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공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치안이 안정된 도시로 꼽히며 그 바탕에는 시민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자리한다. 하

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간과할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이에 공주경찰서는 공주시민이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심한 치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에 취약한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방범 시설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방범 방충망과 창문 자동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공주시는 도로망은 잘 갖춰져 있지만, 일부 지역은 교통안전시설이 다소 미비해 역주행 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공주시와 협력해 위험지역 6곳을 선정하고

시설을 개선한 결과, 과거 여러 건 발생하던 역주행 사고 사망자가 '0명'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금강철교에는 위로의 시 문구를 설치하고, CCTV 관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예방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구조한 사례로 이어졌고, 관련 사고 발생 건수 역시 '0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공주경찰서는 단순히 범죄 예방을 넘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며 일상에 깊숙이 스며드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생활 속 범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정교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해 겁을 주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 링크 하나로 휴대폰 속 정보를 빼내는 방식까지 피해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는 낯설지 않다.

공주시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70%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주경찰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꾸준히 발생하는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피싱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범죄예방관' 제도다.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지닌 퇴직 경찰관이 금융기관 69곳을 직접 순회하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객이 의심스러운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중 직원과 금융범죄예방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지역경찰관서장과 경찰 협력단체가 경로당, 복지시설, 금융기관 등을 찾아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도착 멘트에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송출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밀착형 홍보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 시민의 일상 속 가장 믿음직한 이웃으로

위급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망설임 없이 한 팀이 되어 현장으로 향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등을 믿고 나설 수 있다는 건 곧 자신의 안전을 온전히 동료에게 맡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를 하며 쌓인 끈끈한 동료애는 그들이 짊어진 하루의 무게를 단단하게 지탱해준다. 현장을 지키는 책임감은 시민과 마주할 때 더욱 따뜻한 힘으로 돌아온다. 경찰서는 명절 범죄예방 캠페인부터 교통안전 활동,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까지 도시 곳곳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이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는 치안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다.

앞으로도 공주경찰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어둡고 불안한 공간이었던 '산성시장 문화공원' 환경개선 사업이다. 과거 흡연실과 쉼터, 나눔냉장고 등이 정문을 막고, 야간에는 청소년과 주취자들이 몰리며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던 이곳은 '2025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열린 쉼터로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정재일 서장은 이렇게 말한다. "공주경찰서의 존재 이유는 공주시민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주시청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단체들과 활동하며 조금 더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시민의 하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고 있다. 가장 평범한 하루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내는 이름, 그 곁에 공주경찰서가 늘 함께하길 바란다.

공주경찰서 📍백제문화로 2148-15



## 광복 80주년 맞이 태극기로 함께하는 나라 사랑의 하루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한 광복절(8월 15일)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소중한 방법이다.

햇살 가득한 여름날,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날의 감격과 자주독립의 의미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게양된 태극기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것이다.

### 광복절, 빼앗긴 국권과 함께 빛을 되찾다

‘빛을 되찾다’는 뜻의 광복(光復)절은 대한민국이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시작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국권을 회복한 역사적인 날을 의미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억압과 착취를 당했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침내 독립을 이루게 됐다. 광복절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으로써, 이날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에게 역사 속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뜻깊은 계기가 된다.

### 태극기에 관련한 궁금증 이모저모!

건곤감리(乾坤坎離)는 무슨 뜻일까?



건곤감리는 하늘(건), 땅(곤), 물(감), 불(리)을 의미한다. 이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신을 상징한다.

태극기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이나 인터넷 우체국쇼핑 또는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된 태극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훼손됐을 시 읍면동 국기 수거함에 넣어준다.

## 태극기에서 시작되는 하나 된 마음

광복절날 거리에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증표다. 그러나 태극기는 기념일의 성격과 장소에 따라 게양하는 방식이 달라 태극기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매년 '태극기 나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이장단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달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따뜻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는 8월 15일, 태극기와 함께하는 뜻 깊은 실천으로 일상에서 나라 사랑을 시작해 보자.

### 태극기는 언제, 어떻게, 몇시에 달아야 할까?



#### 국경일 및 기념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 깃발의 봉과 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현충일, 국장(國葬)기간 및  
국민장일(國民葬日), 기타 정부지정일  
... 깃발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로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악천후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씨가 갠 후 게양한다.

### 장소에 따라 태극기 게양 방법이 달라진다고?

#### 단독(공동)주택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주변



건물의 전면에서 봤을 때  
지상이나 출입구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 차량



차량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 조정할 수 있음



## 천 위에 마음을 수놓고 60년 세월을 정성으로 깎다

춘희옷작업실 이춘희 대표

‘드르륵’ 창 너머로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에 문득 발길이 멈춰진다. 상상으로만 떠올렸던 옷이 한 땀 한 땀 현실이 되는 공간. 60년 전, 어머니가 처음 바늘을 들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딸 이춘희 대표가 서 있다. 고운 천 위에는 지나온 세월만큼 많은 손님들의 이야기가 스며들고, 그 이야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옷으로 탄생한다. 몸에 꼭 맞는 편안함과 오래도록 간직될 추억을 함께 짓는 곳, 바로 ‘춘희옷작업실’이다.

### “자투리 천으로 인형 옷을 만들며 키운 꿈”

이춘희 대표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바느질은 늘 곁에 있었다. 세 살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지금의 자리에서 ‘신신양장점’을 열어 4남매를 키워냈다. 그 시절 신신양장점은 공주에서도 손꼽히는 의상실이었다. 가게 안 미싱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열 명 넘는 직원은 하루종일 바빠 움직였다. 여기저기 천조각이 흩날리고 다림질하는 김이 퍼지는 풍경은 어린 춘희 대표에게겐 자연스러운 일상이자 놀이터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벌씩 예쁜 옷이 똑딱 만들어지는 게 어린 눈엔 너무 신기했거든요. 엄마 옆에서 자투리 천으로 인형 옷을 만들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실을 꿰던 딸의 손끝에서 가능성을 본 어머니는 바느질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자는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결국 21살이 된 이 대표는 어머니의 권유로 서울 국제복장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양장 기술을 배우게 된다. 국제복장학원은 우리나라의 제1세대 패션디자이너 최경자 선생님이 세운 곳으로 당대 유능한 기술자들이 배출되던 명문이었다.



춘희옷작업실

● 제민1길 16

● 041-856-3279

“평일엔 서울에서 수업을 듣고, 주말마다 공주로 내려와  
엄마 앞에서 배운 걸 시험 봤어요. 그땐 내가 입고 싶은 옷  
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즐거웠죠. 그 덕에 결혼  
할 땐 웨딩드레스도 직접 만들었고, 아이가 어릴 땐 여름  
마다 모시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주변 어른들께선 모시옷  
을 입은 아기가 신기한지 귀여워해 주셨고요.”

### “2대째 이어오는 봉황동 의상실의 역사”

춘희옷작업실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신신양장점의 시간 위에 이  
춘희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이  
야기다. 국제복장학원을 졸업한 그는 공주로 돌아와 오랜 시간  
어머니의 곁에서 나란히 바늘을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980년대 들어 기성복이 빠르  
게 자리를 잡으면서 동네 의상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변화의 흐름에서도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을 쉽게 놓  
을 수 없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니 부담 없이 오래오래 해보  
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공간이 지금의 ‘춘희옷작업실’이다.

이곳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다. 한 벌의 옷이 완성되  
기까지 손님은 천을 고르고, 디자인을 상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 그 과정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에 대  
한 애정도 자연스레 깊어진다. 이곳에서는 맞춤 제작은 물론, 재  
봉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수업도 이뤄진다. 1:1 개인 레슨  
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는 공주뿐 아니라 세종, 대전 등 인근 도시  
에서도 많은 수강생이 찾아온다. 광고 한번 없이 오직 입소문만  
으로 이어진 발걸음이다.

“양장은 은근히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라 처음엔  
어렵게 느끼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재미있고 쉽  
게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어요. 어릴 적에 ‘재  
봉틀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를 이곳에서 이룬  
분들도 많고요.”

기억에 남는 손님 이야기를 묻자, 덴마크로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는 지인의 요청으로 어머니와 딸이 입을 드레스를 제작했던 일  
을 언급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순간에 제 옷이 함께한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그럴 때면 참 감사하죠”



### “천 위에 새긴 세월, 손끝으로 빚는 하루”

작업실의 하루는 오전 9시, 미싱의 조용한 시동음으로 시작된다.  
월·화·목에는 수강생들과의 수업이 이어지고, 수요일엔 재봉틀  
대신 반찬통을 쟁긴다. 의당면 일대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20  
여 가구에 6년째 꾸준히 반찬을 전해오며, 그는 이 일이 옷을 짓  
는 일만큼 뿌듯하다고 말한다. 작업실은 오후 6시면 문을 닫지만  
공연복이나 무용복, 단체복 등 특별한 주문이 들어올 땐 밤늦도  
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백제문화제 때 500벌이 넘는 백제복을 제 손으로 모두 만  
들었어요. 한달 내내 작업하면서 밤을 샌 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재밌었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보다 제가 만든 옷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이춘희 대표는 ‘좋은 옷은 좋은 원단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동대문 원단 시장을 찾는다. 값이 조금 더  
들더라도 편안하고 오래 입을 옷을 만드는 게 그의 원칙이다. 그  
진심은 옷을 통해 전해진다. 여름용 흰바지를 요청한 손님이 완  
성된 옷이 살짝 비친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자 이 대표는 주  
저 없이 새 원단을 골라 노란색 바지를 다시 지어드렸다.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손님을 보고서야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지금도 작업실엔 오래된 단골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문을  
두드린다. 누군가는 딸의 결혼식 옷을 맞추러, 누군가는 예전처  
럼 편한 옷 한 벌을 다시 짓기 위해 찾아온다. 기억에 남는 건 옷  
보다도 옷을 만들던 시간이다. 천 위에 시간을 수놓고, 사람과 사  
람 사이를 실로 꿰어온 이춘희 대표는 오늘도 그렇게 한 벌의 옷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성껏 다듬고 있다.

## 주민과 함께 쌓아온 세월 사람 향기 가득한 두만리를 만들다

의당면 두만리 전용주 이장

계절 따라 빛을 달리하는 무지개와 노을이 아름다운 예하지 마을, 이곳에는 마을 풍경처럼 늘 그 자리에 있어 온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의당면 두만리에서 나고 자란 전용주 이장은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이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는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 40년간 이웃을 챙기고, 마을을 가꾸며, 전통을 이어왔다. 정성스레 쌓아 올린 두만리의 하루하루 속엔 묵묵히 새겨진 그의 발자취가 있었다.

**산수(傘壽), 삶이 자연스레 마을에 스며드는 나이**  
공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정리했다. 신에는 하늘의 뜻을 깨달았고 예순에는 어떤 말 이든 그 이치를 이해했으며 일흔이 되어서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72세로 생을 마감한 공자가 만약 여든까지 살아 오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 나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마 전용주 이장을 만났다면, 그 시기를 ‘삶이 자연스레 마을에 스며드는 때’라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팔순 잔치를 치른 전용주 이장은 올해 산수(傘壽)를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하다. 그는 두만리에서도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산증인이다. 더욱이 42세에 이장직을 처음 맡은 이후 지금까지 마을을 위해 살아왔으니 말이다.

“42살 무렵에 처음 이장을 맡아서 쭉 한 건 아니고, 몇 번 쉬었다 다시 맡았다는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6년 정도 이장을 했는데, 첫 임기 때 주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했죠. 그게 지금의 마을회관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당시 그는 과거 누에를 사육했던 잠실 폐건물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주민들을 위해 편히 모일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나섰다. 그렇게 시작된 움직임은 두 차례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마을회관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심이 됐다. 이후에도 그는 마을이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했다. 본업과 가정일에 집중하고자 이장직을 쉬는 동안에도 마을을 향한 그의 마음만은 늘 한결같았다.

### 사람 사는 맛, 함께 만들어낸 예하지마을

의당면 두만리를 이야기할 때 예하지마을을 빼놓을 수 없다. 무지개와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은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농촌 체험을 하러 온 이들로 북적인다. 지금은 공주를 대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지만, 그 시작에는 전용주 이장과 주민들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있었다.

2007년 '5도2촌'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 공주시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을 추진하면서 두만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도 해보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전용주 이장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은 빠르게 달라졌다.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의 자문을 받아 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이름을 짓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기획해 나갔다. 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등 계절별 농산물 수확 체험부터 송편 빚기, 옥수수강정 만들기 같은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까지 모두 마을 사람들의 손에서 직접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든든했던 건, 언제나 저를 믿어준 주민들에게요. ‘이장님이 하자고 하면 하자’고 먼저 나서주시니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을에 힘줄 일이 생기면 40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기꺼이 함께하죠.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예하지마을의 '두만리표 김치'는 마을을 널리 알리는 대표 특산물 중 하나다. 매년 김장철이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전국으로 판매한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재료는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로컬푸드이기에 맛도 건강도 자신있다.

두만리는 화합이 좋기로도 이름나 있다. 부녀회, 청년회뿐 아니라 모든 주민이 매달 회의를 열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고, 복날엔 삼계탕을 어버이날이면 국수와 수육을 나누는 작은 잔치도 이어오고 있다. 예하지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의당면 쌀이 꽤 유명합니다. 저희 마을은 친환경 유기농법을 고수해 농약 대신 우렁이를 활용해 벼농사를 짓죠.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이 쌀로 구슬강정이나 한과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어 예하지마을을 더 널리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 마을의 중심에서, 묵묵히 마을을 지켜온 사람

이장으로서 전용주 이장이 남긴 발자취는 마을의 문화와 터전,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일은 '의당집터다지기'를 지역 무형문화재로 발굴하고, 이를 직접 이끌며 사라져가던 전통을 되살린 것이다.



동네 청년들과 함께 만든 '논두렁밭두렁'이라는 모임은 우리 가락을 배우고 나누는 중심이 됐고,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집터다지기를 채록하고 공연하며 결국 '의당집터다지기'는 충남무형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마을의 기반 시설도 그의 손을 거쳐 하나둘씩 달라졌다. 마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던 좁은 골목엔 넓은 도로가 생기고, 마을버스가 오가는 안전한 통행길이 열렸다. 마을회관 앞에는 주차장이 들어섰고, 상수도 공사로 주민들은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변화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마을의 중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아프면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장례를 치르는 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장을 보고, 동네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챙겼다. 지금은 보기 힘든 장승이 마을 어귀에 여전히 서 있고 정월 대보름이면 신농고사를 지내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도 모두가 이어온 전통의 한 조각이다.

“이장이란 건 주민들보다 먼저 나서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을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제 마음이 제일 잘 아니까요.”

그의 이장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두만리 곳곳에는 여전히 전용주 이장의 손길이 살아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온 그 마음이야말로 오랜 시간 마을을 지켜온 진짜 힘이었을 것이다.

### 2024년 생활인구 충남 1위, 전국 3위 기록

공주시가 2024년 생활인구 통계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충남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중부권 대표 체류형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공주시의 2024년 4분기 평균 생활인구는 66만 8,9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6.5배에 달했다. 이는 충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공주시의 연간 생활인구는 779만명으로 전국 3위, 충남 1위를 차지했으며, 백제문화제가 열린 10월 한 달간 생활인구가 78만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체류인구의 6개월 이내 재방문율은 48.9%, 평균 체류 시간은 11.9시간, 평균 체류 일수는 3.5일로 나타나 공주시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사람들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생활인구의 확대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7,000원이며, 이 중 외지 방문객의 소비가 37.3%를 차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소비 분야별로는 문화·여가, 보건의료,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지출이 높았고, 장기 체류층에서는 숙박, 교육, 종합소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카드 사용액이 크게 나타났다.

체류인구 중 숙박 이용 비율은 27.1%로 단기 체류가 많지만 4일 이상 장기 숙박 비율도 23.2%에 달해 충남 다른 시군에 비해 장기 체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유입 인구는 세종시, 천안시, 대전시, 청주시 등 근거리 대도시가 중심이며, 이는 공주시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춘 중부권 체류 거점 도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3시간 이상 체류 유도 환경 조성 ▲숙박형 관광 콘텐츠 및 워크ेशन 프로그램 확대 ▲근거리 대도시 대상 유입 전략 강화 ▲온누리공주시민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인구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인구를 정주 인구로 확장하고 관내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한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등 ‘등록 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으로 실제 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구정책과 (041-840-8753)

### 공주시청 주차타워 준공...210면 규모

공주시청 주차타워가 공주시 봉황동 373-1번지 일원에 새롭게 건립됐다.

주차타워는 연면적 4,333㎡ 규모로, 지상 1층과 2층 그리고 지붕층으로 구성된 철골 조립식 구조물이다. 이는 총 21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주시청 주차타워는 직원들과 민원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주차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행정 시설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계과 (041-840-8135)

## 알밤 재배하고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알밤 보내드려요!



공주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공주월드’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주월드 알밤 배송 이벤트’를 오는 9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공주월드 안에서 알밤을 재배해 마일리지를 모으고 이를 실제 공주 지역 특산물인 알밤으로 교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온누리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공주월드에서 알밤을 재배해 적립한 ‘알밤 마일리지’를 ‘고맛나루장터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단, 마일리지 2천점 이상 전환한 이용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00명을 추첨해 선물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9월 12일에 발표하며 ▲고맛나루장터 알밤 2kg(20명) ▲알밤 선물 교환권(80명)을 당첨자에게 지급한다. 알밤은 고맛나루장터를 통해 직접 배송하고 교환권(기프트콘)은 개인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은 “메타버스 공주월드는 가상 공간에서 공주를 실제로 여행하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며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고 인절미 만들기, 야구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공주시민 제도는 전국 누구나 인터넷으로 온누리공주시민에 가입하면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시민 자격을 인정받아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 ▲백제문화여행 참여 ▲시정 및 관광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홍보미디어실 (041-840-8484)

## ‘공주페이’ 월 최대 100만원 충전 가능

충청남도 최초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의 충전한도가 7월 1일부터 상향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정부 추경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확보된 데 따른 것으로, 공주시는 국비 추가 지원에 발맞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전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주페이는 기본적으로 월 1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결제 금액의 10% 적립금을 지급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적립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혜택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주페이는 지난해부터 상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

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4만 8,000명에 달한다.

이번 충전한도 확대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향후 공주페이 앱과 시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주페이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충전한도 상향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과 (041-840-8282)

## 충남권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시범운영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인 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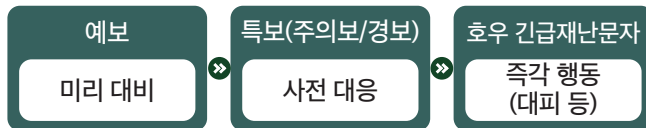
### ◆ 호우 긴급재난문자란?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었을 때 대전지방기상청이 국민의 휴대전화로 직접 발송하는 40dB(데시벨)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한 재난문자

### ◆ 긴급재난문자 운영기간 : 2025. 5. 15.(목) ~ 10. 15.(수)

### ◆ 긴급재난문자 발송기준

- 1시간 동안 50mm의 비가 오고,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의 비가 기록된 경우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시간 동안 72mm의 비가 온 경우에도 발송 가능



### ◆ 문 의 : 안전총괄과 (041-840-2294)

## 2025년 건강실태조사 실시 안내

건강실태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혼합조사(대면·비대면) 시범사업으로, 혼합조사의 전국 확대 도입에 대비해 조사체계의 점검·개선 등을 위해 실시합니다.

※ (특별·광역) 서울 종로, 광주 동구, 대구 동구 / (도농복합) 경기 여주, 충남 공주, 경남 양산 / (군) 강원 홍천, 충북 영동, 전북 임실

###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공주시민 약 900명

### ◆ 조사기간 : 2025. 7. 15.(화) ~ 9. 30.(화)

### ◆ 조사방법

- 지역사회건강조사 혼합조사(대면+비대면) 시범 적용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대면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 실시  
\*조사 링크 발송 →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안내
- 읍면, 읍주 등 19개 영역, 169개 문항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문 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042-224-0741)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 납세의무자

2025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개인분 : 공주시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원]
- 사업소분 : 기본세액 5~20만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해당

※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자료 정비 후 신고납부안내문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부과 시 지방교육세(세율의 10%) 포함)

### ◆ 납부기한

- 개인분 : 2025. 8. 16.(토) ~ 9. 1.(월)
- 사업소분 : 2025. 8. 1.(금) ~ 9. 1.(월)

### ◆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방법

- 지방세입 전화 ARS 납부 ☎142211
-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고지서로 은행창구 및 CD/ATM 이용 납부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 납부
-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에 한해 신청계좌에서 지정일에 이체)

###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

- 방문 신고 : 공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 →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
- 온라인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신고하기 → 신고사항 입력 → 인터넷 납부(전국 은행 CD/ATM 이용납부 가능)

### ◆ 문 의 : 세무과 (041-840-8160)

##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영페스타 참가자 모집 안내

◆ 일 시 : 2025. 10. 9.(화) 17:00

◆ 장 소 : 금강신관공원(제7회 백제문화제 주무대)

◆ 신청기간 : 2025. 7. 10.(목) ~ 2025. 8. 29.(금) 18:00까지

◆ 경연부문 : 댄스, 보컬(밴드 포함)

◆ 신청자격 :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신청방법 : 동영상 이메일제출(gongjuart1@hanmail.net)

◆ 문 의 : (사)한국예총 공주시회 (041-855-3295)

## 우체국 e-그린우편(전자우편) 서비스 안내

### ◆ e-그린우편이란?

발송하려는 우편물(편지, 안내문, DM)의 내용문 출력 및 봉투 제작 등 우편물 제작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

### ◆ 이용방법 : 발송인이 내용문과 수취인 주소록(엑셀파일)을 우체국에 제출

※ 주소록 엑셀 양식 = A열(수취인명), B열(우편번호), C열(주소), 휴대폰 번호(선택)

◆ 추가(선택)서비스 : 칼라인쇄, (선택)등기, 한지(내지), 홍보물 동봉서비스 등

◆ 배달 소요일 : 신청한 다음 날부터 평일 기준 7일 이내 배달

◆ 이용방법 : ① 공주우체국 우편창구 방문 or 메일 or 전화접수

②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http://www.epost.go.kr)

※ 추천우체국 : 공주우체국 입력 요망

◆ 문의 : 공주우체국 (041-851-2521~2)

### ◆ 종류 및 이용요금

| 구 분           | 주 요 내 용                                            | 수납 요금(안내문1장) |       |      | 비 고                      |
|---------------|----------------------------------------------------|--------------|-------|------|--------------------------|
|               |                                                    | 우편요금         | 제작수수료 | 요금합계 |                          |
| 봉합식<br>(소형봉투) | 편지, 안내문, 고지서 등의 안내문(최대 6장)을 편지 형태로 인쇄해 규격봉투에 넣어 발송 | 430          | 90    | 520  | 안내문<br>추가 1장당<br>30원씩 추가 |
| 봉합식<br>(대형봉투) | 다량의 편지, 리플렛, 책자 등 내용문(최대 150장)을 A4용지에 인쇄 대형봉투로 발송  | 520          | 130   | 650  |                          |
| 그림엽서          | 동창회 모임안내 등 내용문을 간략하게 그림엽서에 인쇄해 발송                  | 400          | 40    | 440  |                          |

##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

### ◆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 문의 : 건강관리과 (041-840-3254)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일 시 : 2025. 7. 21.(월) ~ 2025. 11. 26.(수)까지

### ◆ 참여방법

1. 2025. 7. 21.(월) ~ 8. 31.(일)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 접속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사실조사  
참여

2.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5. 9. 1.(월) ~ 10. 13.(월)까지 방문조사 시행 예정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 진행

◆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시  
앱 설치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 시민명예기자가 가다!



## 공주와 밤이 어우러진 왕도심 야간관광 페스티벌

—— 구자희(신관동) ——

공주시가 도시 지명에서 떠오르는 ‘공주’와 지역 대표 농산물인 ‘밤’과 연관된 이름의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야간 관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공주온밤’은 ‘밤이 되면 켜지는 공주시의 따뜻한 밤 여행’이라는 뜻으로 기획된 축제에 올리는 ‘공주 페스티벌’이라는 이름과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 운영된다. 이밖에도 제민천의 밤 풍경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제민천 밤 페스타’와 늦가을 금강의 운치와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주에서 날밤가기’ 등이 계획돼 있다.

그동안 역사를 바탕으로 한 축제는 많았지만, 야간관광 페스티벌은 세대를 초월한 감성과 글로벌 접근성을 갖춘 행사로 공주시를 단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다양한 방문객들이 머물다 가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젊은 세대에게는 꿈과 열정을, 장년층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축제는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농기계 임대 전 교육 이수 필수

—— 권효진(신관동) ——

공주시에서 ‘2025년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현장 중심의 교육은 경사지에서 트랙터 운행 요령, 회전체(PTO) 사고 예방수칙, 방제기 작업 중 보호장비 착용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안전수칙이 자세히 안내됐다.

교육에 참석한 농민은 “익숙한 장비라 방심했는데 다시금 안전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주변에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한순간 방심에서 비롯된다”며 “안전교육은 필수이니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041-840-3575)로 문의하면 된다.



## 청결하고 위생적인 ‘안심식당’ 360곳 지정

—— 김은영(월송동) ——

공주시가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외식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갖춘 식당에 대해 ‘안심식당’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325곳을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60곳까지 확대한다.

‘안심식당’은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게와 젓가락을 별도로 제공하고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지침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안심식당 스티커와 위생용품 제공,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공주시가 외식 문화 전반의 위생 수준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유산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때

—— 노한섭(신관동) ——

문화유산이 풍부한 공주시는 도시 곳곳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불, 가뭄, 폭우,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잦아지며, 목조 건축물과 고분 등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한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년 동안 문화유산 재난 피해 중 풍수해 피해는 885건으로, 이 중 495건이 최근 7년간 발생했다.

공산성만 보더라도 2023년 7월 폭우로 만하루가 물에 잠기고, 금서루 앞 토사가 유실됐다. 또한, 2024년 7월 장맛비에는 영은사에서 만하루~연지로 이어지는 탐방로 일부가 유실됐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다.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가치를 되찾기 어렵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유산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한 문화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 신나는 숲속 사계절 썰매장

—— 박영순(반포면) ——

금학동 생태공원에는 숲과 연결된 걷기 코스, 황토길 맨발 걷기, 야외 수영장, 사계절 썰매장 등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여름에는 사계절 썰매장이 운영되며,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샤워실, 시원한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실 공간이 마련돼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차장 시설 확보는 물론, 주변에는 목재채험장과 족욕장, 생태습지, 탐방로, 생태관찰시설이 있으며 자연학습장 연못에는 연꽃이 만발해 눈까지 즐겁다.

볼거리, 즐길거리, 추억거리, 건강 다지기 등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금학생태공원에서 무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보자.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과 사계절 썰매장은 7월 12일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우천 시 휴무다. 이용 요금은 곰나루어린이수영장은 무료이며, 사계절썰매장은 6,000원(16세 미만), 10,000원(16세 이상)이며 온누리 공주시민은 50% 할인 받을 수 있다.



## 향토에서 세계로! 고마나루국제연극제

—— 윤봉중(신관동) ——

제22회 고마나루국제연극제가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작품은 공모 신청을 받은 우수한 연극 가운데 5개의 작품을 선정해 경연작으로 선보였다.

그동안 연극제는 백제의 고도(古都) 공주시를 배경으로 한 지역의 설화, 민속, 방언 등을 공연하며 전국 유일한 향토연극제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다져왔다.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공연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예술행사를 넘어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축제로 확장시켰다.

2019년부터는 '국제'라는 명칭에 걸맞게 중국, 몽골, 프랑스 등 해외 초청 극단을 참여시키며 향토성과 국제성이 어우러진 연극제로 도약했고, 공주시를 아시아 공연예술의 교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고마나루국제연극제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예술 교류의 장으로 전통과 현대, 공주와 세계를 연결하는 열린 무대로서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주교육대 수영장

—— 장미옥(신관동) ——

공주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주교육대학교 수영장이 드디어 오는 9월 시민들을 맞이한다.

시는 공주교육대학교와 함께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혁신사업(RISE·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교육 혁신)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행·행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수영장 개방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시는 9월 1일 수영장 개방을 목표로 시설을 보강하고, 하루 400명의 시민이 주 6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15일까지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수영장 운영 시간, 휴무일, 추가 개설 강좌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동안 왕도심 지역에 수영장이 없어 이용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으로 공주교육대 수영장 개방이 기대된다.



## ‘나태주풀꽃문학관’ 새롭게 만나요~

—— 최풍호(옥룡동) ——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나태주풀꽃문학관 신관(봉황로 85-16) 개관식이 7월 29일 열렸다.

기존 나태주풀꽃문학관은 나태주 시인의 문학성 조사연구와 문학교육 운영, 지역 문인들의 문학 활동 장려 홍보, 문학관 자료 수집전시 등으로 문인들의 구심점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소통의 공간이었으나 건물 면적이 협소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새출발을 하는 나태주풀꽃문학관은 연면적 950.8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기획 및 상설전시실, 풀꽃라운지, 주민공동이용공간, 교육실 등 기존에 부족했던 공간과 편의시설들을 두루 갖췄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지역민이 다양한 문학 관련 작품과 활동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태주풀꽃문학관은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과 명절 당일은 휴무다.



###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간담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7월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과 반대투쟁위원회 임원진, 공주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공주시 관계자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진들은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주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요구를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달희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사안이 지역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예술공간 전시 신청 안내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 전경(2025년 6월 전시작품)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은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에 방문한 시민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 **신청대상** : 관내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예술가
- ◆ **전시기간** :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의회사무국 의정팀 방문 신청
  - 전시예정일 2주 전까지 신청접수
  - 자세한 전시 일정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 **신청제한**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단체, 종교에 대한 광고, 선·포교를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 공익 실현에 부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문의 : 의회사무국 (041-840-8043)

## 안동시의회 도시경제위원회 우호교류 방문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7월 14일 자매결연도시인 안동시의회 방문단을 맞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안동시의회에서 기획했으며,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소속 의원 8명과 사무국 직원들이 공주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공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환담을 나누며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방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공주시의회의 운영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진 도시경제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공주시의회의 선진 의정활동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 도시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로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달희 의장은 “자매결연도시 의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와 안동시는 2005년 자매결연을 계기로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하반기 공주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안내

| 월별     | 회 기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8~9월   | 제260회 임시회<br>8. 25. ~ 9. 8.<br>(15일간)    | ○ 조례안 등 의안 심의<br>-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br>- 2025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 을지연습<br>(8. 18. ~ 8. 21.)                                 |
| 10월    | 제261회 임시회<br>10. 20. ~ 10. 30.<br>(11일간) | ○ 조례안 등 의안 심의<br>○ 주요사업장 현장방문<br>-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br>- 2025년 시정에 관한 질문<br>- 2026년 출자·출연안 심의 | 추석 연휴<br>(10. 3. ~ 10. 9.)<br>백제문화제<br>(10. 3. ~ 10. 12.) |
| 11~12월 | 제262회 정례회<br>11. 20. ~ 12. 12.<br>(23일간) | ○ 조례안 등 의안 심의<br>-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br>-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제2차 정례회                                                   |

※ 위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 이모저모



의회운영위원회 (6. 4.)



행정복지위원회 (6. 5.)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 6.)



산업건설위원회 (6.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 11.)



공주시의회 하반기 승진자 임용식 (7. 1.)

##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

공주시의회 의원  
이상표



지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복잡한 소회를 느낀다.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집행부 견제·감시의 신성한 책무다. 12명 의원들은 11만 시민의 시간을 대신한다는 소명 아래, 하루 한 시간을 1만 시간의 깊이와 밀도로 채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현실은 행정의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였다. 매년 수십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세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삭감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은 재정 기강의 해이를 드러냈다. 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는 수년째 전국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러 있고, 정보공개 평가는 ‘보통’ 수준으로 시민의 알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만족하는 안일함, 부서 간 칸막이에 갇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자리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의 저력을, ‘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정과 ‘도시재생사업 우수상’ 수상은 미래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줬다. 문제는 이처럼 입증된 혁신 역량이 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는 쓰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혁신이 일부 부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정 전반의 문화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첫째,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 ‘얼마의 예산을 썼다’, ‘몇 건의 사업을 했다’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 스마트팜을 지원했다면 농가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브랜드 개발을 도왔다면 매출이 얼마나 뛰었는지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둘째,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사태가 난 후에 임도를 복구하고, 민원이 터진 후에 악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재해위험 지도를 만들어 위험 구간을 미리 보강하고 상습 위반 업체를 특별 관리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지체없이 적용하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셋째,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시민 중심의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 전통시장의 교통안전 문제는 경제과와 교통과, 안전총괄과가 함께 풀어야 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시민의 편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때 비로소 행정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완전히 개선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동시에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공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성과 중심’, ‘선제적 위기관리’, ‘시민 중심의 협력’이라는 원칙이 시정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집행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의회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주시의 미래다.

## 유구전통시장에서 만나는 미국 정통 수제버거의 맛! 유나인버거 조인트

100년의 역사를 품은 유구전통시장 골목 어귀에 어딘가 이질적이지만, 묘하게 어울리는 미국의 감성이 퍼지고 있다. 시장 입구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몇 걸음 옮기면,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질이는 가게가 그 감성의 주인공. 빨간 글씨의 간판이 인상적인 '유나인버거 조인트(U9 Burger Joint)'의 이름 속 'U9'에는 유구라는 지역명이 센스 있게 녹아있다.

유나인버거 조인트는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에서 미국 정통 치즈버거의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수제버거 전문점이다. 맛의 80% 이상을 좌우한다는 패티는 사장님의 자부심이 오롯이 담긴 핵심 재료다. 보통 목심을 사용하는 수제버거 전문점과 달리, 이곳은 소 한마리에서 약 550g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부위(토시살)를 사용해 깊은 육향과 탱글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패티는 하루 한정 수량만 판매되며, 재료가 소진되면 영업도 마감된다. 따라서 오후에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재고 확인 전화는 필수다,

패티만큼이나 공을 들이는 재료는 버거 속에 들어가는 신선한 야채이다. 특히 공주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제철 토마토는 먹는 순간까지 아삭함과 싱그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상추, 양송이버섯, 양파 등 전국 각지 산지에서 직거래로 들어온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메뉴는 미국식 치즈버거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다. 클래식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머쉬룸 치즈버거, 유나인 디럭스 버거까지 다양한 토핑 조합이 가능해 입맛에 따라 '나만의 아메리칸 버거'를 즐길 수 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폭신한 번(Bun), 두툽한 소고기 패티, 싱싱한 채소가 조화를 이루는 한 입은 '제대로 만든 수제버거란 이런 것'이라는 감탄이 절로 난다.

정겨운 전통시장 풍경 속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감성과 깊은맛을 담은 한 조각의 미국. 신선한 재료와 정직한 조리, 하루에 단 몇 개만 만들어지는 특별함까지. 유나인버거 조인트에서 미국 한복판으로 순간 이동하는 듯한 맛의 여정을 떠나보자.





##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공연

8. 1. ~ 2.



제25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

일시 : 8월 1일(금)~2일(토)  
장소 : 공주문예회관

8. 19.



GAF 공주아트페스티벌  
〈최성수X피카소밴드 콘서트〉

일시 : 8월 19일(화) 19:30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8. 22.



GAF 공주아트페스티벌  
〈애프터 바디〉

일시 : 8월 22일(금) 19:30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8. 23.



GAF 공주아트페스티벌  
〈노래의 날개 위에〉

일시 : 8월 23일(토) 19:30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8. 24.



GAF 공주아트페스티벌  
〈Over The Top〉

일시 : 8월 24일(일) 15:00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공연

8. 28.



문태국x다비드 라일란트  
〈비창: 빛과 그림자〉

일시 : 8월 28일(목) 19:30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축제

8. 2.



〈2025 제민천 밤페스타〉

일시 : 8월 2일(토) 18:00~22:00  
장소 : 공주시 제민천 일대

~ 8. 24.



2025 공주문화관광재단 기획초대전  
〈아이처럼 BE CHILD〉

일시 : ~ 8월 24일(일) 10:00~18:00  
장소 : 아트센터고마

~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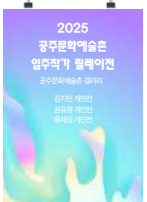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버섯 따라 가던 날, 멧돼지 가족을 만났다〉

일시 : ~ 9월 7일(일) 10:00~18:00  
장소 : 아트센터고마

전시

7. 29. ~ 9. 7.



김지민 개인전 〈물새 목격담〉

일시 : 7. 29.(화) ~ 8. 10.(일) 10:00~18:00  
장소 : 공주문화예술촌 갤러리

권유정 개인전 〈일상의 매혹〉

일시 : 8. 12.(화) ~ 8. 24.(일) 10:00~18:00  
장소 : 공주문화예술촌 갤러리

류재성 개인전 〈끝을 삼켜 처음이 되는 자리〉

일시 : 8. 26.(화) ~ 9. 7.(일) 10:00~18:00  
장소 : 공주문화예술촌 갤러리



### 충청권 문화도시 포럼&워크숍

충청권 법정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연대 방안과 방향성을 논하는  
포럼 및 문화도시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일시 : 8. 21.(목) ~ 8. 22.(금)  
장소 : 한국문화연수원

공주문예회관  
아트센터고마

041-852-0858  
041-852-6034

2025 제민천 밤페스타  
한국문화연수원

041-852-8066  
041-841-9039

공주문화예술촌

070-4415-9123

## 따뜻한 기부 소식

###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인구정책과 041-840-8773

2025년 6월 기부금 총액

**1천578만1천원 / 114명**

2025년 1~6월 기부금 총액

**91,592,700원**

#### 기부자

2025년 고액기부자

김시유, 강창규, 강도목, 권중천, 박연수, 위영수, 조철희  
※ 기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 민간플랫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 창구

#### 기부 혜택

-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지역의 답례품 제공
  - 고맏나루쌀, 공주밤, 알밤한우, 공주페이 등

#### 기금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
-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
- 지정기부 관내 학교 야구부 지원사업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현황

복지정책과 041-840-8792

2025년 1~6월 기부금 총액

**110,503,700원**

2025년 6월 기부금 총액(현금, 현물)

**963만120원 / 7건**

**현금 792만원 / 4건**

신현남, 조병규, 박보람, 공주중앙로타리클럽

**현물 171만120원 / 3건**

이명우, 뚜레쥬르 공주신관점, 소로빵집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기부금 현황

교육체육과 041-840-8643

2025년 6월 기부금 총액

**231만460원 / 64건**

2025년 1~6월 기부금

**10,936,080원**

**일반 187만7천원 / 18건**

(주)웅진 공주콜센터, 이용복, 나태주, 김경미, 이광희, 김정섭, 박상현, 이찬, 이재권, 김학도, 김미란, 오재경, 이지영, 임영미, 서건석, 백옥희, 신영각, 최창원

공무원

**43만3천460원 / 46건**

## 온누리공주 시민제도

온누리공주는 공주시민을 포함해 전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공주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누리공주 를 검색하세요!



### 온누리 공주시민 특별한 혜택



#### 마일리지

공주페이 전환 또는 고맏나루장터 사용(정회원 가입시 5,000 마일리지 적립)



#### 온누리공주 시민증 제시

**입장권 할인(50%)**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석장리박물관

**이용료 할인** 고마열차 이용(20%), 힐스포레 대관(10%), 고마 대관(30% -20인 이상) 장안스포츠클럽 대관 (5%-전화예약 시)

**숙박료 할인** 공주하숙마을 숙박(20%), 힐스포레 숙박(10% -전화, 방문예약 시)

**할인(10%)** 뽕꽃핀마을, 라라코스트, 조랑말, 독일보청기 멀티샵(장애인보장구 제외), 웅진광고, 임립미술관, 다비치안경공주 산성시장점(안경, 선글라스 할인 / 행사품목 제외)

**할인(7%)** 모락연화(평일 브런치, 리조또, 파스타, 피자)

**할인(5%)** 유나인버거조인트, 옥희네브런치카페, 오버패스, 힐스포레 커피&베이커리, 평소리카페, 루치아의뜰, 초코루체, 공주커피사랑채, 그루터기가페, 공산성아래, 공산성절미, 골목카페동주, 내재, 크루1959, 커피나무 609, 청춘떡방, 행복한 오리, 어사또, 마린코스트카페, 콜핑, 네일 나랑노랑(젤 네일), 장안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창고(공류제외), 장안전통놀이체험공방, 포차맘마미아, 우성낙시&캠핑(숙박, 캠핑), 베이커리밤마을, 흥취관(평일), 공주공산성게스트하우스(평일), 바미한복, 니리므의상실

**할인(2%)** 일등여행사(모두, 하나투어 스탠다드상품 이상)

**슈퍼 할인** 탑할인유통(7만원 이상 2천원), 고마스토리(1만원 당 1천원)

**서비스 제공** 우성칼국수, 새이학가든, 군자대한급창, 명륜진사갈비, 착한낙지, 지글지글, 빙수당, 제비파스타, 보디가드스공주3점, 메밀촌, 삼채가, 팔팔무쇠삼겹, 팔팔뒷집, 신아촌추, 새벽옛날통닭, 아이띠에(금흥동), 다비치히어링보청기(공주산성시장점), 공산성본가, 아낙네의밀가, 오리덕애, 고마나루1999

**포인트 적립** 과일나무(2%)



#### 할인쿠폰

**쏘카 할인** (대여요금 50% 할인 / 공주시 내 쏘카존 이용시) - 온누리공주 쿠폰함 쿠폰번호 확인 ▶ 쏘카 내쿠폰 쿠폰번호 등록



##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골든타임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렇게 사용합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치로, 전문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매우 간단함.

#### ① 전원 켜기



- 심폐소생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두고 지체없이 전원 버튼 누르기
- ※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

####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유아



패드1 : 윗가슴 중앙  
패드2 : 등 중앙

성인



패드1 :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2 : 왼쪽 겨드랑이 선

#### ③ 심전도 자동 분석



-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떨어지기
-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 지 꼭 확인!

#### ④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 필요한 경우



버튼을 누른 뒤 자동으로 충전되며, 충전 중엔 가슴 압박 실시

심장충격 필요 없는 경우



심장충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심폐소생술 계속 실시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전도 분석을 반복 시행하며, 심폐소생술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공주시는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관내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미설치 단지 중 관리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 장비 지원

문의 : 보건정책과 (041-840-3222)

WELCOME  
제1회

야  
공주 夜 밤  
맥주 축제

2025. 8. 15. (금) ~ 17. (일) 19:00~

공주 금강신관공원 일원

1일차 8. 15.(금)

전국 재즈탭 대회 1일차  
조째즈 / DJ 뉴진스님

2일차 8. 16.(토)

전국 재즈탭 대회 2일차  
탁재훈 밴드 / DJ 박명수

3일차 8. 17.(일)

재즈탭 시상 및 수상자 공연  
순순희 / DJ 수빈

1부 19:00 ~ 20:00 2부 20:30 ~ 22:00

\*본 일정 및 출연 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